

대행 스님

실천궁행이 아니라면 부처님 법이 아니니라

지난 호에 이어서

참 대법을 가지고 계신 석가세존이나 역대 조사들, 과거의 부처님들만 우러르면서 남의 나무에 과실이 잘 열려서 아주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이 나는 것만 보고, 내 나무에 열린 거는 우습고 내 나무에 열린 거는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잘 가꾸어 무르익혀서 만 가지 맛이 나게 한다면 남도 주고 나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익은 남의 열매를 먹으려고 애를 쓰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한암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어느 큰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기 제자더러 하는 소립니다. "저 마을에 내려가니까 말이야, 잘 익혀서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고깃덩어리를 줄에다가 탁 묶어서 개의 눈을 가려 놓고 코에다가 대 주면서 장난들을 하는데, 코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는데 눈은 가려졌으니 그 개는 눈 가려진 것부터 풀어야 그걸 먹을 수 있을 텐데, 자기 눈 가린 거는 모르고 그걸 벗을 생각은 하지 않고 좋은 냄새가 나는 그 음식만 먹으려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걸 떼 먹으려고 온통 애를 쓰는 것이 얼마나 우습던지 내가 오면서도 웃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습구나. 너는 우습지 않으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가 가만히 들어 보니까 '아하, 스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여쭸죠. "큰스님, 큰스님께서 지금 저더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우스워서 죽겠다." 그러니까 "내 눈부터 틔우고 내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행하라는 말씀이고 지금 그것부터 알라는 뜻인데, 만약에 그걸 모르고 내 눈부터 뜨지 못한다면 그 눈을 가린 개와 같은 격이다 하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같은 게 아니라 그렇느니라."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자기부터 알아야 제 눈이 떠지고 제 귀가 트여서 모든 것을 실천궁행하는 데에 역점을 둘 것이니라. 실천을 못 한다면, 실천궁행이 아니라면 부처님 법이 아니니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요상하고 때로는 아리송하게,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계율이 350계율이 있고 280계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공부한다면서 단 5계, 10계도 못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율을 지키기 이전에 나 하나만 죽는다면 계율이 다 떨어지죠. 나 하나만 죽는다면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죽기 위해서는 모든 착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놔라 하는 말입니다. "맡겨 놓으니 습이 떨어질 것이요, 습이 떨어지니 나를 발견할 것이요, 나를 발견하니 모든 것을 어느 하나도 버릴 게 없을 것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으니 둘이 아닐 것이요, 둘이 아니니 둘이 아니게 나툴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름해서 대도(大道)니라." 이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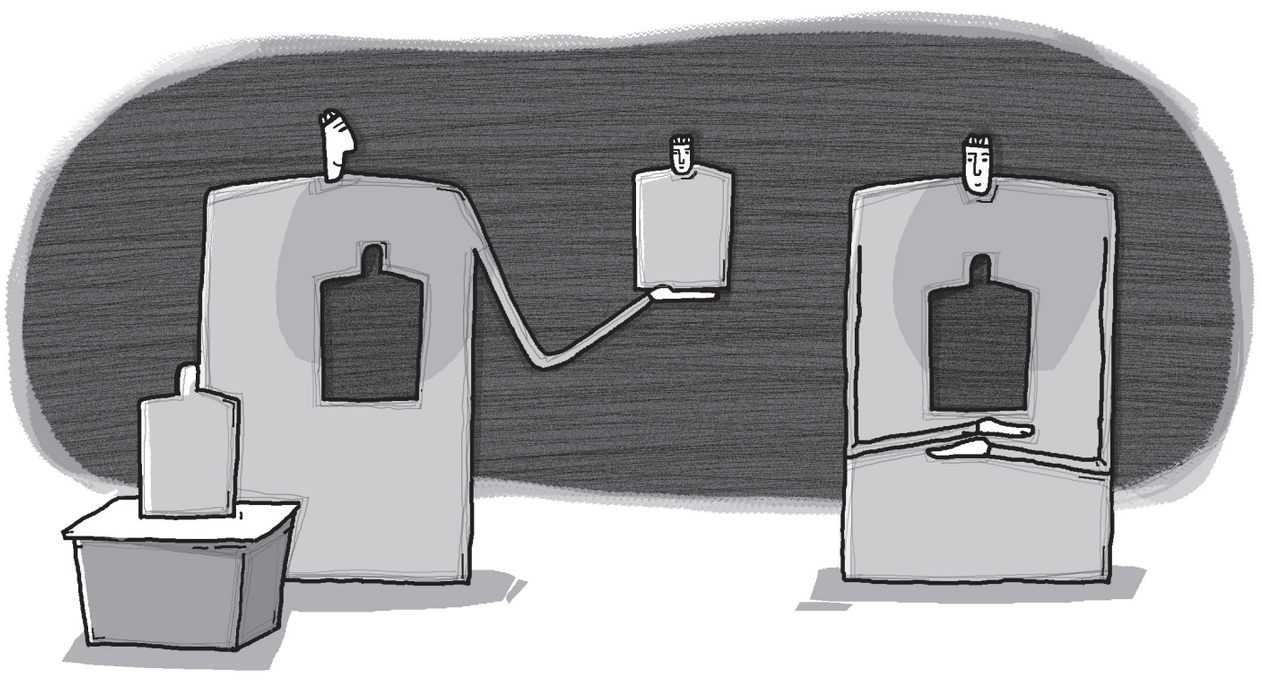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든 것을 내 주인공에 놓는 데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분한테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님이라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아니다' 하고 다 가져도 할 수 없는 거고요. 나는 그렇습니다. 이날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갈 테면 가고 올 테면 오고, 자유니까요.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야 대도를 이루지 만약에 누가 하래서 한다면 이건 강제성을 띠었기 때문에 망상에 끄달려서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것이 옳은가 이럭할 게 뭐 있습니까. 석존이 여기 계신다 해도, 못났든지 잘났든지 내 마음부터 알아야 석존의 마음을 꿰뚫어 보죠. 내 집의 전화부터 놔야 남의 집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전화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알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걸 일임해서 놓으라는 겁니다. 믿고 말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말입니다.

그래서 석존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어느 제자가 너무 아파서 다 죽게 되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석존 뵙기를 원을 하니까 한번 들러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몸 좀 부축해 달라고 하면서 몸을 일으키니까 "몸이 네가 아니니라. 몸은 구름 한 조각과 같고 꽃 이파리 하나와 같고 가을에 떨어지는 가랑잎 하나와 같고 바람결 같으니라. 그리고 인생은 물 흘러가듯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네 몸을 일으킬 생각은 말고 네 마음이, 그렇게 지극하게 나를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참다운 네 마음이요, 부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 뜻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니 네 마음이 정히 그렇다면 네 마음을 보라. 내 육체를 볼 생각을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보라. 네 마음을 그렇게 지극하게 볼 수 있다면 내 마음을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허허, 평생 동안 형제 부모 자식에 대한 착을 모두 놓지 못하더니 결국 네 집에도 착을 놓지 못했구나. 오늘부터 네 집에 대한 착도 놓아라. 몸도 일평생 네 집으로 삼아서,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한 걸 입혔고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한 걸 입혔고 아끼고 씻기고, 또 안 좋은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먹이고 성한 거만 먹였건만 네가 지금 간다 하더라도 네 몸뚱이는 너를 따라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에서 착을 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착을 떼란다고 해서 '재산을 버려라'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사시면서, 사랑을 하는 것도 진짜 착을 다 떼고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모든 착을 떼라는 것은 '그도 주인공이 있고 나도 주인공이 있으니 주인공만이 이끌어 줄 거다.' 하고 탁 맡겨 놓으면 떼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난 뒤에,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아무리 나를 배신을 했다 할지라도 좋은 말을 해 주고 따뜻하게 해 준다면, 그러다가도 바깥이 추우면 따뜻한 데로 찾아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자식을 뒀어도 나중에는 아주 효자가 되고 충성하고 아주 바르게, 정말이지 인간의 도리를 알고 탐구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착을 떼어 놓고 사랑하면서 좋은 말을 해 주고 이런다면, 밉다 곱다 이런 생각 말고 집에 들어오면 그저 부드럽게 "나가서 며칠 밤이 지났는데 어디 가서 굶지나 않았는지 모르겠구나." 하고 좋게 말해 준다면, 아무리 미운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인공에다 탁 내던져 버리고 그렇게 말을 해 주면 자식에게 자각심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럭하고 왔는데도 어머니가 야단도 치시지 않고 좋게 말을 해 주시는구나.' 하고 언젠가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줄줄 흐를 겁니다.

☞ 24면으로 계속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대행선사 탄신 99주년 기념
한마음으로 그리는 평화의 선율



산사문화축제

2026. 10. 3.(토) 오후 7시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대법당 앞마당

초대가수


가수 이찬원


가수 진미령


가수 마이진


가수 추혁진


가수 정혜린

주최 · 주관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후원 현대불교신문 불교신문 법보신문 BBS 불교방송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